

특집 : 도서관의 장서개발

# 초등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한 단상



김수진

리라초등학교도서관 사서  
cassiopea@empal.com

## 초등학교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중요성

어느 관중이든 장서는 도서관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초등학교 시절은 평생의 책임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며 이 때 올바른 도서관 이용 경험은 개인뿐 아니라 도서관 문화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서관의 장서는 특히 중요하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인생 초기 엄마와의 관계는 그 이후 인간관계의 유형을 결정짓는다고 할 만큼 엄마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장했다. 책의 경우 그림책이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책으로 아이가 그림책 속에서 찾아낸 즐거움의 양에 따라 평생 책을 좋아하게 될 지 좋아하지 않게 될 지 결정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교수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연구와 어린이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하므로 장서는 학교도서관의 여러 요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 장서개발의 문제점

초등학교도서관에서 장서개발에 관한 문제점이라면 첫째, 장서구성 기준과 장서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서구성에 있어 도서자료의 경우는 그 기준과 비슷하게 구입되지만 다른 자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 자료는 도서를 포함한 각종 인쇄자료와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 등의 시청각자료와 전자자료, 향토자료 등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학교도서관 장서 기준도 1982년 발표한 기준과 비교할 때 전자자료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이용하는 장서의 대부분은 도서자료와 연속간행물 정도이며 비디오 자료와 실물, 모형 등은 정보부(과학실)에서, 컴퓨터 기기 및 CD-ROM은 정보부(인터넷실)에서, 영어관련 자료는 연구부(영어실습실)에서 구입 및 관리, 이용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교수 매체들의 통합 관리와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표 1〉 2003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학교도서관 장서 기준

구 분	자료의 종류	기본자료 수	연간 증가 수	연평균 제적 및 폐기율
초 등 학 교	도서	학생 1인당 5권 이상	학생 1인당 0.5권	기본 자료의 10% 이내
	연속간행물	학교당 20종 이상	-	
	시청각자료	학생 1인당 3점 이상	학생 1인당 0.3점	
	전자자료	학생 1인당 1점 이상	학생 1인당 0.1점	

둘째, 장서 구입 과정의 문제로 교육청에서는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 구입비로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의 재원을 자료구입에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도 어느 대학 연구소에서 펴냈다는 도감류, 무슨 단체에서 펴냈다는 책들은 학교의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책들은 고가이며 책의 내용도 그저 그렇다. 일방적으로 학교로 택배로 보내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게 행정부서의 설명이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다.

또 기증에 의존하여 굳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정부서의 입장이다. 학교에 대한 자긍심 때문인지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기증이 많은 편이긴 하다. 신입생 입학 기념과 졸업 기념 도서 기증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신입생 입학 기념의 경우 수서목록을 주면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통해 학부모들이 구입해 보내준다. 입학해서 도서 기증 표창을 받는 것이 학교생활

기증을 통해 장서를 확충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장서를 확보한다는 학교 관리자의 태도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을 시작하는데 있어 아이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활발한 편이다. 또 졸업 기념으로 도서 기증을 받는데 그 동안 학교에서 권장도서목록이나 독서퀴즈대회 선정도서 등 현재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되는 책들이 많다. 책에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을 꽤 뿌듯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기증을 통해 장서를 확충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장서를 확보한다는 학교 관리자의 태도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셋째, 장서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의 부재이다. 사서(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혹은 자료선정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기

적인 회의를 갖거나 그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책에 관심을 갖고 희망도서 목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교사가 아니라면 어린이책 출판 경향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사서(교사)의 절대적인 권한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장서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간행물윤리위원회(어린이책 목록은 많지 않다) 목록이나 각 신문사 서평이나 광고, 인터넷 서점 서평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폐기의 어려움이다. 학교도서관 장서는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폐기가 어렵다. 책의 상태나 내용에 상관없이 관리자들에 책꽂이에 책이 뽁뽁하게 꽂혀 있는 걸 좋아한다(분류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키 순서대로 혹은 전집류끼리 꽂혀져 있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처음 도서관에 왔을 때 1960~70년대 책도 많이 있어 깜짝 놀랐었다. 그 후 폐기는 신간 확보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부장과 교감까지 결재를 받고 폐기하기로 했는데 책을 버리는 모습이 학교장 눈에 띄어 발각 뒤집혀진 일이 있었다. 책을 버리는 게 무슨 사서냐며 호통을 치셨고 불호령이 떨어져 그 날 내내 점심도 굶고 서가 사이에서 평평 울었던 경험이 있다. 결국 그 책들은 학교 건물 옥상위로 올라와 야외도서실이 만들어졌다. 폐기해야 할 책들로 가득한 이름뿐인 야외도서실인 셈이다.

## 효율적인 장서개발을 위한 과제

(무엇보다 도서관을 운영할 사서교사의 배치와 충분한 예산 확보, 적절한 폐기와 장서 평가 등 중요한 요소가 많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여러 학술논문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

첫째, 다양하고 적절한 어린이장서를 구성하는 아동문학,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웹사이트 등의 전자미디어와 다른 자료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최근 어린이책 출판시장의 확대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를 제대로 운영할 아동사서에 대한 교육과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근무하고 나서 현장에서 몸소 찾아서 배워가며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문학이나 어린이자료에 대해 학부에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고 또 현장 사서들을 위한 재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어린이도서관과 봉사활동이 발전된 미국의 아동교육을 보면 아동도서관 봉사와 아동도서관의 강좌에서 6개월간에 최저 아동도서를 200~300권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평을 해야 하고 연령별 목적별 지도를 위한 서목을 작성하게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어린이 책에 대한 충실한 전문가로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언제까지 어린이도서관연구회나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등의 목록만을 들춰볼 것인가?(이 목록들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헌정보학이란 학문이 디지털도서관이 유행할 땐 전산학과에 흔들리고 기록관리학이 유행할 땐 역사학과에 흔들리고 이젠 어린이 자료에 대해서도 아동학과가 주류를 잡고 있는 것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둘째, 번역된 책에 대한 전문가적 안목이 필요하다. 원제목이 『The Rabbit's wedding』이라는 책은 시공주니어에서 『토끼의 결혼식』으로 출판되었고 다산기획에서는 『흰토끼와 검은토끼』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숲 속에 사는 토끼 두마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지만 두 책의 느낌은 정말 다르다. 전자의 책이 번역에 충실했다면 후자의 책은 사랑과 결혼이라는 감정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



게 표현했다.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된 명작동화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서 어느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까지도 우리 사서들이 해야 할 몫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고유의 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해 통달하고 교과에 알맞은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서구성을 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7차 교육과정 이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학습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장서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각 교과단원에 알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담임교사들도 도서관을 먼저 찾기보다는 '티나라'와 같은 사이트를 참조

하거나 '인디스쿨'과 같은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먼저 얻는 편이다.(아이들에게 인터넷에서만 숙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나무랄 일도 아니다.) 5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 경제단원이 나오는데 인디스쿨에서 『레몬으로 돈 버는 법』(루이 암스트롱 지음, 비룡소)이란 책이 소개되어 이 책만 도서관에서 대출되고 대형서점에서 일시 품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책이 경제관련 용어를 쉽게 풀이한 좋은 책임에 틀림없지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여러 경제관련 책들은 순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교과관련 목록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등 교과 연계 도서 목록 등은 학년 수준, 교과 단원의 목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담임교사의 요구 등과 조금은 어긋난 느낌이다.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장서구성에 신경 써야 한다.

넷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과 장서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도서관 상호협력 체계는 대학 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자료의 공동 이용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주로 1일 도서관 체험,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방학중 독서교실 등 극히 제한되어 운영해 왔다. 도서관간에 계획에

학교도서관 고유의 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해 통달하고 교과에 알맞은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서구성을 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학습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장서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의한 체계적인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의사소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서개발과 같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장서, 재정, 인력 등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 시설 갖추기와 장서 확충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서 확충에 있어서 보여주기 식의 양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데 이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장서개발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우리 아이에게 독서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어떤 책이 각 연령 단계에 적합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간혹 열성적인 학부모들은 직접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현장 사서(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 좋은 먹을거리를 정성껏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장과 마음의 풍요를 위해 장서개발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㉞

